

서울

각 과 학생회장 뽑아

독일어과
추정준(2)군이 18일(목) 열린 학생회장 선거에서 제직인원 36명 중 18명(50%)이 투표한 가운데 17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추준은 스포츠모임 연대강화에 지인 독일어과 사업 특화 △소식지, 과 홈페이지 등 의사소통기구 마련 △지적육구 예산을 위한 학습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된 후 추준은 "독일어과 민의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외교학과
신정현(2)군이 18일(목) 제직인원 155명 중 108명이 참가한 학생회장 선거에서 95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선거에 단독 출마한 신군은 학업 공동체 구현을 위해 △프로젝트 개화, 전공서적 공동구입 △시뮬레이션 활동 △캠퍼스 구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당선된 후 신정현은 "과에 대한 애정을 담아 공약들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어과
이영철(2)군이 22일(월) 제직인원 395명 중 247명이 참가한 학생회장 선거에서 235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이군은 △홈페이지 개설 △취업, 연수 정보 제공 △문화행사 사업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영어과
이후보 정 민준(4), 부 과역수(1) 선거일 29일(월)

신방과 인터넷방송국 방송시작

신방송학과 인터넷 방송국은 18일(화)부터 시범방송을 시작했다. 외대인과 외대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방과 인터넷 방송은 신방과의 방송기초학 학습을 계기로 인터넷 방송에 관심있는 신방과 학생, 졸업생들이 6월말 개교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됐다. 방송국은 현재 외국어를 다룬 작품을 방영하는 '다국어 방송', 인터넷 방

노어과 명예교수 이철 교수 별세

노어과 이철 명예교수가 18일(화) 새벽 6시경에 대장암으로 별세했다. 고 이철 명예교수는 우리학교 노어과 1회 졸업생으로 대다수 동료학우에 교재로 쓰이는 '이철 러시아어' 등 저작 활동과 연구활동으로 러시아어계의 태두로 불리었다. 장지는 포천이다.

외대 명인전 개최

외대 명인전이 외대 박물관 주위로 19일(금) 사회과학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참가인원 부족으로 5급 이상이 참여하는 갑조는 참가자 전원이 한 번씩 대령하는 리그전으로 진행됐으며, 6급 이하가 참여하는 을조는 순차끼리 대결을 벌이는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갑조는 문보기(상경계열 1)군이 을조를 압승한(사양·영이 4)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박물관 회장 문보기(상경계열 1)군은 "참가자들이 젊어 아쉬웠지만, 승패를 떠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정외주간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

정치외교학과인들의 문화행사인 정외주간 행사가 29일(월)부터 다음달 3일(금)까지 우리학교 곳곳에서 진행됐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29일(월)부터 30일(월)은 '신당 전통', '평화'의 의미를 주제로 세미나리가 열리는 학술제, 에니메이션 열화제, 설문지를 통해 뽑힌 20세기 베스트음악을 뮤직비디오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제, 29일(목)에는 강연회, 30일(금)에는 체육대회와 일일주장이 열린다. 또한, 정외주간에는 2층 R로마가 공연하며, 청학회는 청학관을 연다. 정외주간 준비위원장 김다은(2)군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 뉴스형식을 이용해 노래로 불렀다. 이와 관련 패자 송영(2)군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인도어과 소모임 공연

인도어과 종별 '현열'이 29일(월) 5시 반 대학원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린, 신디더자, 첼로, 베이스 등의 서양악기의 협주를 시도한 '포 밀레니엄(FOR MILLENNIUM)', '11월 29일'과 사(2)곡의 독주자 특집인 '문우주'가 연주된다. 현열 패자 정영우(2)군은 "외대 내에서 정행화되지 않은 공연들이 계속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어과 노래 '날개'도 19일(월) 6시 대학원 소극장에서 3시간 가량 첫 번째 정기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나 vs 너 나 주제로 인간사 회화 속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 뉴스형식을 이용해 노래로 불렀다. 이와 관련 패자 송영(2)군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2회 외국어능력검정시험 21일 실시

2회 외국어능력검정시험(FLEX) 이해영역시험이 21일(일) 시청각교육관 건물에서 실시된다. 청취,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이번 시험에는 7개 과목 23명만이 응시했다. 또한, 시험 다음날인 22일(월)에는 청어과, 영어교육과 졸업시험이 FLEX로 대체된 채 치워진다. 외국

어언어평가원 평가위원 김진철씨는 "학기가 끝나가는 무렵이어서 FLEX가 실용외국어학점을 인정해주는 혜택이 잘 활용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은 5월(일)에 있는 표준능력시험을 1차 시험에서 72점 이상을 취득해야 응시 가능하다.



태국과 옛보기

지난 20일(토) 서울배움터 대학원 소극장에서는 '제1회 태국과 옛보기'가 열렸다. 노래의 공연과 원어연극으로 이루어진 이번 예술제는 편 안나와 태국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에 공연을 보러온 노승용(동양·태국어)군은 "처음 보는 예술제지만 많은 준비를 한 태국인들이 특이한 태국 전통의상과 전통의 음악을 자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람

서울다큐멘터리 영화제 본선 후보작 '마리랑'을 제작한 문용희(동학·마인어 3)군을 만나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담으려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사람의 내면을 가깝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르예요. 다른 장르와는 달리 진실함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한 문용희(동학·마인어 3)군은 다큐멘터리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밝혔다. 이번 서울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본선 후보작에 오른 '마리랑'은 일과와 놀이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버려지는 아픔을 시하는 이해만을 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 작품이다. "출품작 7편 중 본선 후보작은 15편이었는 데 학생들 자를 포함해 36편이 없었어요. 수상까지는 아니었지만 본선까지 오른 것에 대해 정말로 기뻐요"라며 미소를 띠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저는 아마추어예요. 일부

러 프로의 흥내는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점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담으려요. 노력의 보를 받았 것 같아요"라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평소의 모습이 시나리오를 써놓고 감지에 두고하려고 했다는 문용희는 "무언의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에서 하는 '원 태극'라는 해외문화 프로그램 보고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곳에서 첫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 이번 영화제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고 밝혔다. 예정부터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준비했다는 문용희는, 시민단체 활동과 방송국 작가들의 경험을 하나씩 쌓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다큐멘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문용희는 "우리 나라 다

구분	이름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1	이철	18	22	23	24	25
2	이철	18	22	23	24	25
3	이철	18	22	23	24	25
4	이철	18	22	23	24	25
5	이철	18	22	23	24	25
6	이철	18	22	23	24	25
7	이철	18	22	23	24	25
8	이철	18	22	23	24	25
9	이철	18	22	23	24	25
10	이철	18	22	23	24	25

구분	이름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1	이철	18	22	23	24	25
2	이철	18	22	23	24	25
3	이철	18	22	23	24	25
4	이철	18	22	23	24	25
5	이철	18	22	23	24	25
6	이철	18	22	23	24	25
7	이철	18	22	23	24	25
8	이철	18	22	23	24	25
9	이철	18	22	23	24	25
10	이철	18	22	23	24	25

구분	이름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1	이철	18	22	23	24	25
2	이철	18	22	23	24	25
3	이철	18	22	23	24	25
4	이철	18	22	23	24	25
5	이철	18	22	23	24	25
6	이철	18	22	23	24	25
7	이철	18	22	23	24	25
8	이철	18	22	23	24	25
9	이철	18	22	23	24	25
10	이철	18	22	23	24	25

외대학보

참신한 시도 계속적으로

지난 주 주재 기획위원을 보았다. 학생들의 사건과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것이 새로운 시도로 무척 참신한 것 같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참신한 일을 계속하길 바란다.

이병훈(상경계열 3)

학생선거 비중있게 다뤄야

지난 주 학보에는 1면 머릿기사로 민중대회가 나왔다. 민중대회도 비중있게 다뤄야 하지만, 학보인 만큼 학교 내의 활을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

특히 요즘은 학생선거가 주요기사인 만큼 이런 기사가 머릿기사에 들어와야 한다.

이진우(상경계열 1)

서울, 고시원시설 열악하다

이번 학보에 사법고시 합격자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학교의 사법고시 준비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다. 반대편에서 이런 문제가 무척 심각하다고 본다.

이번 문제에 관해서도 학보에서 다루어 볼 것 같을 것 같다.

김태규(법·법학 2)

학생에게 절실한 내용들...

외대생들에게 절실한 것은 실지 않으면서 민중대회 기사를 1면에 실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학보는 학생들의 신문이다. 그런 만큼 학생들의 주 관심사가 1면에 들어와야 한다. 외대학보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고려해 봐야지 않을까요?

권혁록(상경계열 1)

바꿔드립니다

·지난 주 '외대학보'를 읽고에 대한 답변

‘양배달 기사구분 안됨’ 송영환(사학·정치외교 3)은 글 보았습니다.

·지난 주 신문의 제목, 재목이 독자의 흥미를 높였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사를 구분하기 위해 2개 기사의 제목은 독자의 관심 정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양배달 표기에 유의하였습니다.

협산의 소리 출판사 H&J(Hanji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에서 출판합니다

활을 바랍니다.

- 작가 외대(교수·학생·직원 모두)
- 주제 ① 개인·공동 ② 나라·세상 주제권 전·반의전
- 매수 500원 원고 400원
- 매장 매수 500원 원고 400원
- 발행 학생기자(학생·직원 모두) 원고 500원 원고 400원

‘외대학보’를 읽고... 글이 신선했습니다.

‘외대학보’를 읽고... 글이 신선했습니다.

학교측, 취업관련 교양과목 개설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등 취업에 신경써야

취업을 앞둔 4학년들에게는 요즘의 날씨가 더욱 쌀쌀하게 느껴질 것이다. 학년보다는 취업의 길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은 일부의 특권처럼 보인다.

대학의 기능 중 하나가 고교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진출의 길을 넓혀주는 것에 있다. 지금의 대학은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고학력의 실업자를 만드는 곳으로 전락했다. 물론 취업이라는 문제를 학교에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학내에서 취업에 관해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한 명이라도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측은 취업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제시하면

첫째, 취업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현재의 봉사활동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을 좀 더 확충하고 기업문화와 기업에 대해 그리고 면접에 대해 이미지 메이킹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신설해야 한다. 물론 학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둘째, 취업주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취업주간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매년 취업과 관련하여 자격증, 공개강, 국내기업, 해외기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전과 같은 모의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수업과 겹치게 되어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석할 학생들의 대다수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업 때문에 앞뒤에 몇 차례 없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일단 중 단 하루만이라도 ‘학내의 날’을 정하여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화를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의 재발견을 초월하여 강연과 대화를 통해 사회진출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올해 2학기부터 취업을 성취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더 제안하지만 재수강 신청서를 내면

즉시 그 과목을 성적표에서 제외해 주었으면 한다. 4학년 2학기의 경우 10월 둘째 주까지 재수강신청서를 받는데 그 과목이 성적표 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12월 초쯤이다. 성적이 좋지 못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것인데 더욱 빨리 장선 처리 한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이 오르게 될 것이다.

넷째, 증명서 발급시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 왕산캠퍼스의 경우 증명서 발급기가 없고 증명서 전산이 꺼져 시간이 쪼들기 있다. 4학년들이 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증명서 발급기는 예산과 효율성 문제로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외캠퍼스 교외캠퍼스대로 마땅한 것이 없이 남지 않은 원사를 제출하여 하는 학생과 기숙사생을 위해 점심시간과 토요일 오전에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이다. 취업정보센터는 학생들이 취업에 관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나 이 곳을 적절히 활용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어떤 학교의 취업정보센터는 마치 고급 카페와 같이 꾸며 놓았는데 4학년들이 부담 없이 들러서 그곳에서 취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보공유와 정서적응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넓은 공간과 시설의 확충 그리고 담당직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조금만 고민한다면 개선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어떤 학교가 훌륭한 평가받고 발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 중 동문들의 사회활동도 포함될 것이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보람을 발견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에 합당한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좋은 취업에 관한 의욕이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발로 뛰어 대담한 방법을 통해 사회진출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김태호(통학·마인어 4)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자세 돋보여...

지난날 서울배우터에서는 단체 별로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다.

늦은 가을 초여름인 학교는 선거단 학우들의 우렁찬 구호와 학생회장 후보들의 패기 있고, 정열적인 모습으로 활기에 넘쳤다. 내가 속한 서양어대에서는 두 팀의 후보단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두 팀 모두 자신감이 넘쳐 있었고, 한해 동안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학생회장의 모습으로 손색이 없었다.

각 후보단이 제시하는 공약을 속에는 우리 학우들이 평소 갖고 있던 학우에 대한 불만과 그에 대한 개선안이 속속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각 후보들은 유권자인 우리에게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과 소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결선 각 후보단인 열면 선거 운동과 17.18일에 실시된 학생회장 투표를 통해 결국 선거는 한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고, 우리 서양어대 학생들은 한해 동안 우리 학생들의 기쁨과 불만을 함께 나눌 새로운 학생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새내기로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는 처음 경험해 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는 약간의 실망과 그 보다 큰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주위에서 본 작은 부분에서의 이야기지만, 우리 학생들 중 일부는 선거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나부터도 선거단 학생들이 나누어 준 홍보물들을 골라지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했다. 선거 후보들의 연설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못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보여준 좋은 모습을 생각하면 이번 실망보다 더 큰 만족을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각 후보들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함과 정점으로 선거에 임하고, 선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새내기학생들이 예전에 보던 기성 세대의 정치선과와는 다른 깨끗한 이미지의 선거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모두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준 각 후보들에게 한 가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우리들 위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된 새 학생회장에게 함께 힘을 줄 수 있는 맛있는 외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승걸(사학·내셔널더어 1)

비좁은 공간, 부족한 운동 시설 등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높다

나는 평소 농구를 즐기는 편이다. 언제까지든 주말이면 농구를 하기 위해 학교로 달려온다. 그러나 농구대에는 항상 사람들이 꽂혀 있다. 그럴 때면 우리학교가 좁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학교는 체육관이 없어 체육교양 수업 때마저 실재 운동을 하기는 힘들다. 체육관은 바리치 않더라도, 공간이 너무 부족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희대까지 가서 농구를 해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주 작은 부족함이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되곤 한다.

이것은 비단 농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운동들 하려고 해도 공간이 비좁기는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실재할 때 다 학생들이 IC방에 몰려든다. IC방이 어찌된 학교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일지 모르겠다.

우리학교 학생수가 타학교에 비해 적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학생수가 7천명이나 되는 학교에 농구 골대가 2개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변별적으로 소외해는 주지않고, 우리의 미용양속에 대해 원인으로 원천적으로 수를 봉쇄하는 따위의 어거지는 아닌 것이다. 더 많은 외국과 다양한 영화들을 한국에서도 접할 수 있고, 그 영화들을 통해 많은 토론이 벌어지면 좋겠다. 서구와 한국, 아시아와 한국을 편리하게 구분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좁아져 버렸다. 서구문화의 확대에 따라 사람들이 해외에는 비정형적인 한국의 문화현상을 극복해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영화와 음악, 문화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상민 (외국문학연구소 초빙연구원)

수당 인권영화제에 대한 단상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인권영화제가 개최된다. 금년에 주목할 만한 영화는 단연 ‘슬픔과 연민’이다. 미르스 오를스 감독의 이 영화는 2차대전 당시 비서 대독물들 정권의 역할, 극한상황 속에서 프랑스인들의 선택(저항 혹은 변절), 20세기 전반기를 종횡한 모든 이데올로기들을 인터뷰 형태로 다양한 자료화면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결국 ‘슬픔과 연민’의 국내 첫 소개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광복하게 느껴지지 않은 편일지? 이 영화의 독해는 그다지 쉽지 않다. 당시 상황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어 프랑스사에 대한 꽤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를 통한 서구 모든 상황의 이해가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 인권영화의 영화 ‘쇼아’가 국내에 첫 소개되던 때가 떠오른다. ‘네트’의 이적자를 문제삼아 영화제를 축적으로 만들었던 영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결국 이 영화는 이적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만), ‘슬픔과 연민’ 역시 프랑스사 속에서 갖는 비중에 대해 불구하고 한국적 상황 속에서 뒤떨어질 수 있을 위험이 상당히 존재한다. 영화의 정치적 의미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영화를 통해 오늘날의 프랑스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쉽게 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나아트센터에서 파올리나 영화제가 열린다. 큐브리도 좋고, 파올리나도 좋다. 하지만 서구 모든 학문의 한국적 수용이 그렇듯, 영화 역시 유럽의 흐름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개의 경우 행사나 끝나는 연마의 비평적이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결실과 타락에 대한 이해 없는 ‘대(大) 만화 La Grande Baudouin’의 국내 소개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물론 영화에 대한 답답이 무성하고, 문학을 읽도록 것 같은 영화의 기제는 대단하며, 또 문자의 독해를 논하는 순간 지면도 이미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정신의 반영이 아니라? 그 한탄한 이미지들로부터 의미 도출에 실패할 때 남는 것은 한기증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무기력증 뿐이지 않을까? 영화 수용의 현재적 모습은 바뀌어야 한다.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 서구에 대한 지적 스니비즘 문운까지 정해, 서구에 대한 이해는 공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남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기준은 절대 마련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변별적으로 소외해는 주지않고, 우리의 미용양속에 대해 원인으로 원천적으로 수를 봉쇄하는 따위의 어거지는 아닌 것이다. 더 많은 외국과 다양한 영화들을 한국에서도 접할 수 있고, 그 영화들을 통해 많은 토론이 벌어지면 좋겠다. 서구와 한국, 아시아와 한국을 편리하게 구분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좁아져 버렸다. 서구문화의 확대에 따라 사람들이 해외에는 비정형적인 한국의 문화현상을 극복해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영화와 음악, 문화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상민 (외국문학연구소 초빙연구원)

돈 들이지 말고 학생들이 나서자

·돌발맨-
·곰탱이-
·LG 내년엔 우승이
·LG가 바쁘지? 학교가
·바쁘지? 20이,
·지금 햇빛입니다

·주제: 2위를 들린 중
·장기발전계획수립이 의
·대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데...

·연재 우리가 참한거
·있나 -조영남
·그 돈 나우면 열배로
·불러주지

·한 도박사-
·나 그걸을 알았다.
·점쟁이-
·지금 햇빛입니다

·계회수립에 20이 들
·면 계회수립에 열거나
·들어가게 가?

·주제: 2위를 들린 중
·장기발전계획수립이 의
·대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데...

·연재 우리가 참한거
·있나 -조영남
·그 돈 나우면 열배로
·불러주지

·한 도박사-
·나 그걸을 알았다.
·점쟁이-
·지금 햇빛입니다

노동부 3차 정부지원 ‘인턴제’ 사업시행 공고

● 인턴을 희망하는 분

● 지원자격

·전문대학이상 졸업자(2000.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졸입학자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 1970. 1. 1. ~ 1982. 12. 31 출생자)

·제외자: ①재학생 ②고교 ③졸업예정자 ④정부지원 인턴 연수중인 자 ⑤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수혜대상 자 ⑥실업자 직업훈련 수당중인 자 포함)

● 지원내용

·3월간 계약직 근로자로 현장연수

·월 50만원 급여지급, 연수기관에 따라 추가지급 (※교육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부여)

·연수중 또는 연수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음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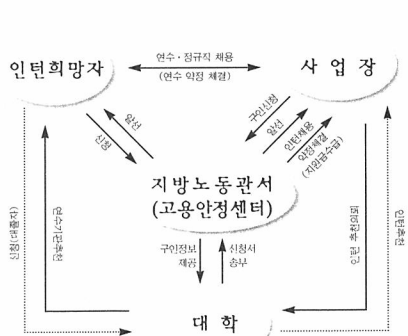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신청

·대형(예정)자는 출신(소속) 대학에 신청가능

·제출서류: 인턴희망신청서, 학력증명서, 구직표(반명함판 사진(3×4cm) 부착)

·신청기간: 1999년 11월 22일~12월 4일

인턴사원 48천명 선발!!!



●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벤처기업, 수출유망기업, 유망중소기업, 기술력 및 고용유수기업 우대.

● 지원내용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하는 인턴채용 사업장에 1인당 월 50만원, 3월간 지원

·정규직 채용시 3월간 추가지원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장등록증 사본, 구인표

※우수중소기업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

·신청기간: 1999년 11월 23일부터 수시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학력 대책팀(☎50-5646),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1588-1919)에 문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노동정책-실업대책 '참조'

·신청서류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입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99년 11월 22일

노동부장관 이 상 룡

Citation

차베스

이그나시오 라모네 (IGNACIO RAMONET)

요즘 라틴아메리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다. 우고 차베스(Hugo Chavez). 45살의 이 군 사령관은 1992년에 쿠데타를 기도했으며 1999년 12월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뽑혔다.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 그는 파벌과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의 경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겠다고 밝힌 대로 '사회주의'와 민주적인 혁명'에 착수했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이 욕구는 지난 40여년간 권력을 누려온 두 정당, 즉 시민민주주의인 민중혁명당과 기민주의자인 코페이의 혼란과 부패에 대한 베네수엘라인 내부부의 분노를 반영한다.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가 지난 25년동안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3천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사람 절반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전체 일할 수 있는 인구의 1은 실업자이고, 작업이 있는 사람의 절반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차베스는 이를 막고 있다. 그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 아르투로 우슬린의 피레트(Arthur Uslar Piñetti)는 "부자나 가문에 이 나라를 던진 수백 개월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소련한 나라를 지었다. 이들은 수십 년동안 어떤 정치적 격동에도 변함없이 엄청난 부를 자신들끼리 나눠가졌다"고 말한다. (1) 그러나 세계화를 살고있는 국 제적인 언론 일부는 재벌인 차베스를 비난하고 있다. 그를 "급진 좌파 권위주의"라고 하거나 "독재정치로 향하고 있다"거나 "부패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는 길을 닦고 있다"거나 하면서 말한다. 그러나 차베스는 말한다. "우리가 목표하는 함 여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권력구조의 어떤 수준(단계)에도 충분히 개입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인간관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측면에서, 차베스는 신 자유주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세계화에 저항하려고 한다. 그는 "우리는 시장과 국가와 사회의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경제체제를 가능한 한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꼭 그만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사회화를 이끄는 세력들은 반 자유주의 혁명을 시도하는 차베스를 사회의 모순을 하고 새로운 약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Arthur Uslar Piñetti, 'La Venezuela al final de un gran cambio', Le Monde diplomatique, December 1998. (아르투로 우슬린의 피레트, "대변 변화의 문턱에 선 베네수엘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998년 12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1월호에 있습니다. 번역: 신기섭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진상

자본주의로의 편입, 대안인가 파멸인가

중국과 미국은 지난 11월 15일(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관해서 합의했다. 명실상부한 자본주의의 나라인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 정부가,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에 입각해 있는 중국을 대신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중국의 시장개방 조치들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양국의 협상에서 중국은 WTO 가입을 얻은 반면에, 자국 통신품의 외국 자배를 허용하고(49%까지 허용하고 2001년부터는 50%로 한), 평균 수입 관세율을 22%에서 17%로 낮추고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며, 은행, 보험, 정보통신, 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두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중국이 세계적인 범주에서 자본주의의 데에 완전히 편입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세계 경제 체제는 전일적인 자본주의의 체제로 수렴해 왔다. IMF와 WTO와 같은 국제금융자본이 아시아 금융 위기를 초래하면서 대두되었던 지역적 혹은 국지적인 지역 경제체제 -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 경제체제와 경쟁체제로 모호로 삼정될 수 있었던 - 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세계적인 범위의 상품 교역에 있어서도 국경경쟁은 무의미해졌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이 뚜렷하게 자본주의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다른 측면에서 WTO 가입의 문제가 회원국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었다. WTO는 결국 미국의 자본주의적 세계 지배를 합리화하는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함으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 자본주의

이번 합의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는 점이지, 어떻게 가입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갖고 있던 국가 독점의 자본주의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주의적인 경제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국가자본의 팽창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중국 사회의 자본이 독자적이고 더욱 위력적이며 정치경제적으로 사실상 중국의 중추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 권력이 기본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WTO가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범국적적 발전과 공정한 분배를 골간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생산력의 확대와 이를 통한 사회적인 불균등 발전 전략에 의한 시장 경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결국 이제 완전한 의미에서 중국은 자본주의의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자본주의의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국가에서 전위되었던 노동조합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의 국가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적인 체제의 해체와 이원적인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반봉건 농민 혁명적인 성격이 강했던 중국혁명이 이제 반자본 노동자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있을 역사적 역설을 목도하게 된다.

WTO 가입의 함의: 미국의 패권성 증명

중국을 미국을 상대로 세계 자본주의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WTO 가입 협상을 15년간 벌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반대



해 왔다. 이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이데올로기'에 있지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과 중국이라는 산출 자본과의 역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른바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는 내용들을 받아냈다. 결국 중국은 시장 경제체(노동자의 생산력 = 소비력)을 가지고 자국의 이익(자본가)의 세계화 = 자본 국가화를 관철시켰다. 미국은 세계 자본 질서의 완성과 미국 자본의 현지화를 실현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두 자본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 타결되었다.

여기서 주요하게 지적할 점은 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좌우하느냐의 문제이다. 완전한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는 곧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떠한 국민 경제 국가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소비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결국 중국의 노동자들의 착취본(잠재적인 자기 축적 자본)을 가지고 다른 자본주의의 국가를 대신해서 중국과 교섭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 국민 경제 국가를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에 편입시키므로써 20세기를 지배했던 국가가 두꺼운 세계적인 경제 기준을 새로운 형식을 출현시켰다. 더 이상 국민경제는 무의미해졌다. 세계 경제는 세계 자본과 세계 자본의 이익들의 아주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중국의 노동자들이 이런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현실 즉 노사간의 모순과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국제정치경제적인 정점에서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불 일이다.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한 재료들의 위치와 색들의 조화에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피자는 붉은 색의 토마토소스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 녹색의 브레체돌로(Presenzino) 향료와 흰색의 치즈가 장식된 것으로, 오늘날 이탈리아 국가의 기치색을 상징하고 있었다.

물론 이탈리아는 남부의 나폴리왕국이 아닌 북부의 사보이아왕국의 주도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피자에 표현된 나폴리인들의 애국심은 누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로서 조국 이탈리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 피자는 원형대로 온갖 가난했던 장래의 배고픈 위장을 위로하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흔의 송고한 의지를 지켜주고 삶과 죽음의 발달을 위한 한 가치를 부여하는 애국심의 발로였다.

로키움

삶의 고난과 애국심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피자

김정환

(이태리학과 강사)

맥주와 함께 먹을 때 그 진정한 맛의 깊이를 드러내는 피자는 이탈리아적인 삶의 풍부한 관대성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원형의 붉은 보름달이 지난 과거의 역사에서 반도인들의 배고픔과 국가라는 서러움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자는 절대빈곤과 외세의 탄압을 상징하는 노란색 감자칩과 농민들의 한탄한 붉은 실을 담고있는 오렌지, 바로 그 과실이 지배되는 남부의 가난 대지에서 알려되었다. 초기의 피자는 오늘날의 수없이 다양한 재료와 맛의 예술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단지 약간의 소금이나 치즈를 첨가하여 장식함만이 국위임을 알고 통근한 밀가루 반죽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렌지색의 붉은 농민을 닮은 토마토가 식탁에 등장하면서, 피자는 갈망의 물결에서 왕국의 대서사를 오가는 격조를 갖추게 되었다.

추개 되었다.

무덤에 지주하던 어느 여름날 오후, 하나의 입을 통해 알려진 피자에 남달리 중용해 하던 왕비는 왕에게 사치한 기회를 간청하였다. 안전상의 문제로 피자집을 찾아가 수 없었던 왕은 이탈리아는 부인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에 나폴리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요리사 부부를 왕궁으로 초청하였다. 급하게 장식화 벽이 설치되고 최고급 밀가루와 토마토, 올리브기름들이 준비되고... 드디어 왕과 왕비가 식탁에 앉은 순간, 요리사부부는 이미의 멋진 맛을 담으며 조식스럽게 두번의 피자를 완성하였다. 왕비의 눈앞에 놓인 피자는 특별히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새로운 재료들이 첨가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피자는 왕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어쩌면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왕비의 관을 장식한 펄보

한 재료들의 위치와 색들의 조화에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피자는 붉은 색의 토마토소스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 녹색의 브레체돌로(Presenzino) 향료와 흰색의 치즈가 장식된 것으로, 오늘날 이탈리아 국가의 기치색을 상징하고 있었다.

물론 이탈리아는 남부의 나폴리왕국이 아닌 북부의 사보이아왕국의 주도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피자에 표현된 나폴리인들의 애국심은 누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로서 조국 이탈리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 피자는 원형대로 온갖 가난했던 장래의 배고픈 위장을 위로하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흔의 송고한 의지를 지켜주고 삶과 죽음의 발달을 위한 한 가치를 부여하는 애국심의 발로였다.

1954년 4월 20일... 전쟁의 상처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고 국제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숭한 약조건 속에서 설립된 한국외국대학교... 60년대는 조국 근대화의 일꾼을, 70년대는 자유민주주의의 배아를, 80년대는 국제화의 참봉을, 그리고 지금까지 전세계를 한데 묶는 분야별 전문가를 배출해 왔던 한국외국대학교... 이제 새로운 천년을 향해 다시 응미하러 합니다.

외적 화려함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매마른 가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정과 사랑으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하는 "새 천년 맞이 외대인의 밤"

일 시: 1999.12.14(화) 오후 6시 30분
행사내용: - 식전행사
장 소: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
- 1부 공식행사 (기념식)
참가대상: 동문, 교수, 직원, 재학생, 학부모, 독자가 등 외대를 사랑하
- 2부 만찬 및 축하공연
는 모든 사람
행사목적: 외대가족의 화합 도모
· 연락처) 외대만경컨벤션본부
TEL 02-961-4402, 02-3295-5702, FAX 02-3295-5705
서울캠퍼스 본관과 용인캠퍼스 중앙도서관 건립기금 도모

공부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지만 학원 위주로 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가격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른바 기업들이 선호하는 명문대 또한 취업사정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서울대에서는 개교 이후 최초로 취업지도교수가 생겼다. 서울대생들만 실제로 졸업후 취직장점을 절반 크게 예외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학칙이 최하위권 서울대에도 한해는

한상준
〈서양·독일어 4〉

←

외대학보, 내꺼!

네, 물론입니다.
외대학보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이며,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외대학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여론과
문제작품을 무엇이든 받습니다.
학생회관 2층 기자실로
직접 가져오거나 컴퓨터 통신
(하이텔, 나우누리 <OEDAE>)이나
e-mail(oedaeprsss@hanmail.net)으로 보내주십시오.
※ 참고 : 보내주신 글에는
원고지 1매당 2,500원 상당의 원고료도 있습니다.



학내보도·용인배우터 중국어과 학술제

와! 중국이 보여요



장강 5일간의 걸쳐 펼쳐진 용인배우터 중국어과 학술제 '정성제'가 지난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공대 강의실과 후북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지역학, 성경연구반, 원어학회, 원어노래, 연극 학회 등 과내 5개 소모임이 흥취를 돋우며 발표

표현을 가진 이번 학술제는 객석별로 열리는 만큼 준비나 내용면에서 앞장섰다는 평가다.

지역학 학회 '정성제'는 기존의 딱딱한 학술 발표 방식에서 탈피해 퀴즈대회를 준비했다. 정지, 정제, 정사 등 5개분야에 대해 단답형문제를 출제한 퀴즈대회에는 총 5개팀이 출전했다.

중국어로 '임아누'라는 뜻의 '이마너리' 성경연구 학회는 중국어 찬송가, '참제'에 나타난 찬조의 역사 연구 합창 등을 준비해 새로움을 선사했다.

"뿐만아 주심시요"라는 중국어 발음을 잘못해 "저랑 뽀뽀하시겠어요"라는 말로 오해를 받은 예외시드를 공연한 원어학회는 실감나는 표정과 몸짓으로 중국어 발음, 성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어학회는 이번에도 '내 마음속의 중국' 시낭송과 중국 사복족 신장지역의 생활상, 야시장을 볼 비디오에 담은 영상물을 발표했다.

네티즌 열린 원어노래과 공백대의 공연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컴필, 쿨(Cool) 등 중국가요 여파곡과 드라마 '카이스트' 주제곡 '비움으로 여는 세상' 반란곡을 공연했다.

그 중, 영화 '황비홍' 삽입곡 '남아남자'를 부른 세바하 학회원들은 중국식 복장과 머리띠를 두른 화제였다.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원어연구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 이번 행사에는 총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 해 마무리하는 가장 큰 과를 사복족의 변모를 유감 없이 발휘했다.

장승호 기자 cedae98@hannmail.net

용인배우터 FBS방송

격동·낭만·시련의 강을 넘은 대학문화

"격동, 낭만, 시련, 도약...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학문화의 모든 것을 찾습니다"

지난 18일(화) 저녁에 강당에서 열리던 FBS 방송제가 긴세기 도약하는 대학문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연을 올린 환영주(문학·태국어 2학년)는 "세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대학문화의 발전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세대의 대학문화의 발전모습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기획의도를 전했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방송제는, 1부 '문화, 그간의 대학'이라는 주제로 대학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부의 준비로 살펴보고, 2부 '낭만, 그간의 대학'이라는 주제로 대학문화의 변천사와 3부의 취재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2부에는 '대학의 시간'을 주제로 돌아가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대학문화의 변천사를 다루었다. 자료영상과 음악이 준비되고 그에 맞는 아나운서들의 일갈은 청취자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주었다. 6.25 이후 80년대의 대학문화는 계몽, 낮은 가치관의 대학, 그리고 국가적으론 대표할 수 있었다. 이항아리 노래가 잔잔히 울려 퍼지며 시작된 70년대의 대학문화의 모습은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저항정신이 깃들어가 있었다.

장말, 미니카트, 참치, 키퍼, 생크루... 우산정경에서 반발의식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직이었던 이것들은 급기이었던 것이 많았던 이시점의 대학생들의 하나의 유행으로 퍼져나

대인이 외대인에게

용인배우터 마인어과 '마인월보'

마인어과 과장인 '마인월보'는 외대 최초의 과신문이다. 마인어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을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사화하고 과의 행위에 대한 과장한 점과 비판을 하여 보다 나은 모습을 이끌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졸업생들과 재학생들간의 상호 연락체계를 담당하고 있다.

마인월보는 1988년 4월 1일 8개 지면으로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11년만에 50호에 이르렀다. 현재는 12개 지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보는 1, 2학년으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해왔고 나가고 있다. 작업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 중도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서로 지지를 내며, 때론 서로 격려하며 월보를 발행해 왔다. 이런 것 때문에 편집위원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월보가 자랑할 만한 것은 신문뿐만 아니라



홍태화·(동학·마인어 2)

인간관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 역시 선배가 좋아 월보에 들어오게 되었다.

월보는 언제나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선배와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동기, 선배들을 믿고 잘 따라와 주는 후배들이 있기에 월보가 이제껏 잘 이어오고 있으며 또 월보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내가 선배에게 받은 사랑을 나의 후배들에게 이런 것이 월보의 변화하지 않는 내리사랑이라고 전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 전문적으로 신문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 또한 '월보'란 말 그대로 매월 발행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씩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감에 보다 나은 마인월보가 되도록 할 것이다.

서민

공예안

연극 '사망'

서울 연극계에 발돋움한 공예안은 4살 생일을 맞이해서 혼자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다.

발레가 전무였던 여인은 젊은 시절 발레를 위해 남친과 이별을 버렸다. 20살때 중매 결혼한 여인은 가식과 위선, 양인 양심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발레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여인은 두살밖에 지치지 않고 두루 슈즈 하나만 들고 가출한다.

그런 여인에게 사랑이 찾아온다. 연극 '사망'은 청각적이며 리얼리즘 연극으로 사랑의 본질과 실재를 찾기 위한 작품이다.

1999년 11월 25일 ~ 12월 19일
시간 : 월(3시), 화(수금) 4시/ 7시/ 30분, 일(3시/ 6시) * 목요일 공연 없음
문의 : 극단신화(02-923-2131)
연장료 (02-708-5000)
관람료 : 9,300원 1,500원 2,500원 5,000원 20,000원

서민

이란어과 원어연극반 'HINA' 공연

이란어과 원어연극반 'HINA'는 24일(수) 6시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백성공연을 공연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공연은 공부를 구한 왕자와 길을 떠나는 장편으로 끝을 맺는 왕자를 각색해 시간의 장막을 걷어낸 왕의 명령으로 왕비가 자결하려는 순간 공주가 마녀처럼 막을 내리게 된다.

또, 이란어를 모르는 관객을 위해 내레이터가 공연 사이사이 줄거리를 설명해준다.

공통연출을 맡은 석정원(2학년)은 "이란인들을 초청해 교류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 앞서 22일(월) 5시에 이란전통악단 '비데인'이 교수학과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20일(토) 태국어과 예술제 열려

태국어과 예술제가 지난 20일(토) 대학원 소극장에서 열렸다.

태국 전통 수중춤, 악기를 연주한 '문화의향' 노래를 공연한 원어연극반 '이마너리' 이번 예술제에는 공연에 비해 많은 동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그 중, 원어 연극은 '바우르 크로아'라는 작품으로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방을 배경으로 도시의 남자와 사물치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

예술제 총기획장 김경남(3학년)은 "정말 열심히

히 노력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로그아웃 네번째 정기공연 열려

공연

락 음악이론리 로그아웃(Log out)의 네 번째 정기공연이 '논산·열기·남강' 그룹이 만드는 제1막작 '락곡연'이라는 주제로 오는 24일(수) 늦은 8시 자전대 강당에서 열린다.

2시간 30분동안 '내버 세이 콘바인(Never say goodbye)' '볼 트랙(Bomb track)' 등 총 32곡이 연주될 이번 공연에서는 히드코어, 얼터너티브 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선보인다. 또한 개별 동시연에서는 드럼에 대형 멀티스크린을 이용해 음악에 관련한 영상물도 준비했다.

그 외, 공연중간에 관객들도 즐길 수 있다.

행사를 준비한 '희원 안용문(정보산업과·컴퓨터학과 3학년)'은 "90년대 신랄한 풍자비판이 공인되어 동시대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보 '연' '연대'에 연대연극에서는 각 과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 서울 02961-4152, 연선 033930-4112

오!대학보



지난주 있었던 FBS방송제는 오늘날의 대학문화를 점검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사진은 대동대학 대인연극 문학행사시 만들어 줄거리를 모습

갔다. 이어서 화형, 플랑크드, 갓발, 마스크 등으로 마무리한 80년대는 공황정황부터 6월항쟁까지 학생운동이 큰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승리는 학생운동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다. 80년대후반부터 사회, 학력,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되면서 대학문화의 모습도 변질되었다.

오늘날의 대학문화를 형성하였다. 대학주변에는 술집, 노래방, p방 등 온갖 유흥문화가 퍼져있고,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 웹툰 등의 '가이'의 대안에서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진 3부는

의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Train'의 대를 꿈꾸며 또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와 의사관문, 기지대부족문제, 수의학용무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태대학과 비교하여 대안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며졌다.

"지금의 대학문화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김성경(정보통신과대·생명과학 3학년)은 전했다.

하지만, 흥분과 한탄만으로는 부족하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윤용은 기자 happyend21@hannmail.net

학과(전공)선택 지원서 접수

거점대학별로 입학한 연세 1학년 학생에 대한 '학과(전공)선택 지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시거나 기간에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임의로 배정하여 유학하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계열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으로 2000학년도 제1학기 2학년 진급대상자
2. 접수기간 : 1999. 11. 29 (월) ~ 12. 10 (금) ~ 10:00 ~ 16:00
3. 신청서 배부 및 접수 장소 : 해당대학 교육과(컴퓨터를 제외한 계열 지참)
4. 학부(전공)배정원칙

대 학 학부·계열	학과(전공)	배정인원	배정원칙	비고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50	1.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학과 정원으로 배정
	통 계 학 과	2	1학년 학업성적 상위자	
	신문방송학과	3	입학시 수학능력시험의 상위자	
상경대학	상 경 계 열	90	무관학과	-
	재계학과	80	-	
	경영학과	90	-	
인문대학	인 문 학 부	40	1.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전공별 100% 배정
	철 학 전공	2	1학년 학업성적 상위자	
	사 회 학 전공 언어학전공	3	계열(학부) 공통 교과목 중 배정 전공 성적 상위자	

5. 배정시기 : 1999학년도 제2학기 성적학원 기간 (2000. 1. 14 (금)에 끝나는 공과 및 인문계 학부)
6. OMR카드 작성시 유의사항 : 가.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표기가 잘못되었을 때 곧바로 수정 작업을 사용하지 말고 재카드에 재작성 할 것. 나. 제1지망과 제2지망을 동일한 학과(전공)로 표기하지 말 것. 다.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전공)에 임의로 배정함. ※ 수업일수 3/4선 이후 교내에 합격자는 휴학생이 제출서 제출 학과와 같은 교과목에 반드시 '학과(전공)선택 지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11. 교무처장

공 고

1999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과목 및 수강신청·등록 원금에 대해 공지 함

구분	교과목명	학점	과목번호	과목시간	비고
교과목	영어1	30	201	1-2-201	(9-4222)
	영어2	30	201	3-4-201	
	영어3	30	201	5-6-201	
	영어4	30	201	7-8-201	
	영어5	30	201	9-10-201	
	영어6	30	201	11-12-201	
	영어7	30	201	13-14-201	
	영어8	30	201	15-16-201	
	영어9	30	201	17-18-201	
	영어10	30	201	19-20-201	
	영어11	30	201	21-22-201	
	영어12	30	201	23-24-201	
	영어13	30	201	25-26-201	
	영어14	30	201	27-28-201	
	영어15	30	201	29-30-201	
영어16	30	201	31-32-201		
영어17	30	201	33-34-201		
영어18	30	201	35-36-201		
영어19	30	201	37-38-201		
영어20	30	201	39-40-201		
영어21	30	201	41-42-201		
영어22	30	201	43-44-201		
영어23	30	201	45-46-201		
영어24	30	201	47-48-201		
영어25	30	201	49-50-201		
영어26	30	201	51-52-201		
영어27	30	201	53-54-201		
영어28	30	201	55-56-201		
영어29	30	201	57-58-201		
영어30	30	201	59-60-201		
영어31	30	201	61-62-201		
영어32	30	201	63-64-201		
영어33	30	201	65-66-201		
영어34	30	201	67-68-201		
영어35	30	201	69-70-201		
영어36	30	201	71-72-201		
영어37	30	201	73-74-201		
영어38	30	201	75-76-201		
영어39	30	201	77-78-201		
영어40	30	201	79-80-201		
영어41	30	201	81-82-201		
영어42	30	201	83-84-201		
영어43	30	201	85-86-201		
영어44	30	201	87-88-201		
영어45	30	201	89-90-201		
영어46	30	201	91-92-201		
영어47	30	201	93-94-201		
영어48	30	201	95-96-201		
영어49	30	201	97-98-201		
영어50	30	201	99-100-201		
영어51	30	201	101-102-201		
영어52	30	201	103-104-201		
영어53	30	201	105-106-201		
영어54	30	201	107-108-201		
영어55	30	201	109-110-201		
영어56	30	201	111-112-201		
영어57	30	201	113-114-201		
영어58	30	201	115-116-201		
영어59	30	201	117-118-201		
영어60	30	201	119-120-201		
영어61	30	201	121-122-201		
영어62	30	201	123-124-201		
영어63	30	201	125-126-201		
영어64	30	201	127-128-201		
영어65	30	201	129-130-201		
영어66	30	201	131-132-201		
영어67	30	201	133-134-201		
영어68	30	201	135-136-201		
영어69	30	201	137-138-201		
영어70	30	201	139-140-201		
영어71	30	201	141-142-201		
영어72	30	201	143-144-201		
영어73	30	201	145-146-201		
영어74	30	201	147-148-201		
영어75	30	201	149-150-201		
영어76	30	201	151-152-201		
영어77	30	201	153-154-201		
영어78	30	201	155-156-201		
영어79	30	201	157-158-201		
영어80	30	201	159-160-201		
영어81	30	201	161-162-201		
영어82	30	201	163-164-201		
영어83	30	201	165-166-201		
영어84	30	201	167-168-201		
영어85	30	201	169-170-201		
영어86	30	201	171-172-201		
영어87	30	201	173-174-201		
영어88	30	201	175-176-201		
영어89	30	201	177-178-201		
영어90	30	201	179-180-201		
영어91	30	201	181-182-201		
영어92	30	201	183-184-201		
영어93	30	201	185-186-201		
영어94	30	201	187-188-201		
영어95	30	201	189-190-201		
영어96	30	201	191-192-201		
영어97	30	201	193-194-201		
영어98	30	201	195-196-201		
영어99	30	201	197-198-201		
영어100	30	201	199-200-201		
영어101	30	201	201-202-201		
영어102	30	201	203-204-201		
영어103	30	201	205-206-201		
영어104	30	201	207-208-201		
영어105	30	201	209-210-201		
영어106	30	201	211-212-201		
영어107	30	201	213-214-201		
영어108	30	201	215-216-201		
영어109	30	201	217-218-201		
영어110	30	201	219-220-201		
영어111	30	201	221-222-201		
영어112	30	201	223-224-201		
영어113	30	201	225-226-201		
영어114	30	201	227-228-201		
영어115	30	201	229-230-201		
영어116	30	201	231-232-201		
영어117	30	201	233-234-201		
영어118	30	201	235-236-201		
영어119	30	201	237-238-201		
영어120	30	201	239-240-201		
영어121	30	201	241-242-201		
영어122	30	201	243-244-201		
영어123	30	201	245-246-201		
영어124	30	201	247-248-201		
영어125	30	201	249-250-201		
영어126	30	201	251-252-201		
영어127	30	201	253-254-201		
영어128	30	201	255-256-201		
영어129	30	201	257-258-201		
영어130	30	201	259-260-201		
영어131	30	201	261-262-201		
영어132	30	201	263-264-201		
영어133	30	201	265-266-201		
영어134	30	201	267-268-201		
영어135	30	201	269-270-201		
영어136	30	201	271-272-201		
영어137	30	201	273-274-201		
영어138	30	201	275-276-201		
영어139	30	201	277-278-201		
영어140	30	201	279-280-201		
영어141	30	201	281-282-201		
영어142	30	201	283-284-201		
영어143	30	201	285-286-201		
영어144	30	201	287-288-201		
영어145	30	201	289-290-201		
영어146	30	201	291-292-201		
영어147	30	201	293-294-201		
영어148	30	201	295-296-201		
영어149	30	201	297-298-201		
영어150	30	201	299-300-201		
영어151	30	201	301-302-201		
영어152	30	201	303-304-201		
영어153	30	201	305-306-201		
영어154	30	201	307-308-201		
영어155	30	201	309-310-201		
영어156	30	201	311-312-201		
영어157	30	201	313-314-201		
영어158	30	201	315-316-201		
영어159	30	201	317-318-201		
영어160	30	201	319-320-201		
영어161	30	201	321-322-201		
영어162	30	201	323-324-201		
영어163	30	201	325-326-201		
영어164	30	201	327-328-201		
영어165	30	201	329-330-201		
영어166	30	201	331-332-201		
영어167	30	201	333-334-201		
영어168	30	201	335-336-201		
영어169	30	201	337-338-201		
영어170	30	201	339-340-201		
영어171	30	201	341-342-201		
영어172	30	201	343-344-201		
영어173	30	201	345-346-201		
영어174	30	201	347-348-201		
영어175	30	201	349-350-201		
영어176	30	201	351-352-201		
영어177	30	201	353-354-201		
영어178	30	201	355-356-201		
영어179	30	201	357-358-201		
영어180	30	201	359-360-201		
영어181	30	201	361-362-201		
영어182	30	201	363-364-201		
영어183	30	201	365-366-201		
영어184	30	201	367-368-201		
영어185	30	201	369-370-201		
영어186	30	201	371-372-201		
영어187	30	201	373-374-201		
영어188	30	201	375-376-201		
영어189	30	201	377-378-201		
영어190	30	201	379-380-201		
영어191	30	201	381-382-201		
영어192	30	201	383-384-201		
영어193	30	201	385-386-201		
영어194	30	201	387-388-201		
영어195	30	201	389-390-201		
영어196	30	201	391-392-201		
영어197	30	201	393-394-201		
영어198	30	201	395-396-201		
영어199	30	201	397-398-201		
영어200	30	201	399-400-201		
영어201	30	201	401-402-201		
영어202	30	201	403-404-201		
영어203	30	201	405-406-201		
영어204	30	201	407-408-201		
영어205	30	201	409-410-201		
영어206	30	201	411-412-201		
영어207	30	201	413-414-201		
영어208	30	201	415-416-201		
영어209	30	201	417-418-201		
영어210	30	201	419-420-201		
영어211	30	201	421-422-201		

학술단신

우리학과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학술 발표회 열려

우리학과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는 오는 28일(금) 오후 2시, 용인캠퍼스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연구동 307호에서 '한반도 경기 학술 발표회'를 가진다.

'오늘의 라틴 아메리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제는 정치·경제·문화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분야의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정치: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국제질서'(국제성/성문대 중남미학 교수) △경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김종섭/서경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화: '20세기 중남미 문학과 중남미인의 정체성 모색'(신동환/서남연고대 교사)

진보적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문예계 강제출국 물의

지난 12월 오후 7시경 서울에서 열리는 99 서울 국제노동미디어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행과 함께 입국 하러던 스티브 핼릭 씨가 공항당국에 의해 8시 20분 미국으로 강제출국 당했다. 스티브 핼릭 씨는 미국의 저명한 노동조합 운동가로 노동자 형성운동과 노동네트워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노동당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부장을 역임하였고, 지난 97년 제 1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와 98년 서울 국제노동미디어에도 참석하는 등 한국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왔다. 공화당측은 강제출국시킨 이유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 단지 입국금지명단에 오른 사람의 입국을 불허할 뿐"이라고 중언했다.

이에 대해 99서울국제노동위원회 조직위원회 측은 "크리스티나와 이기봉 씨에 이어 이번 스티브 핼릭 씨에 대한 강제출국조치는 단순히 미국 노동운동가의 주방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며 △경제 출국시킨 이유를 명백히 밝힐 것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밝힐 것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보상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기법연구소 기획강연 개최

노동기법연구소는 오는 12월 3일(토)오전 10시 '한국경제와 노동자 문제'에 대한 기획강연을 준비했다. 강수형(서울대 경제학)교수, 강수준(고려대 경영학)교수, 조현택(노동기법 연구소 연구원)씨 등 다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IMF를 맞아 한창되는 노동운동의 복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IMF 2년 한국 경제와 노동자 문제 '역사적 시점에서 본 경제정책의 한계'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12월 2일까지 장소는 송실대 사회봉사관

문의: 836-0634(노동기법 연구원)

조세희씨 초청 강연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기 위하여'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 ‘절규’ 하라”

20세기 왜곡된 역사의 극복은 '민중'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20세기를 우리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보냈다. 백년동안 우리 민족은 너무 많이 해고되어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죽었다. 산은 아예 컸다. 독재와 전쟁을 포함한 지난 백년들은 약인의 세기였다. 이렇게 무지하고 잔인하고 욕심 많고 이타적이지 못한 자들이 마음놓고 무리지어 번영을 누렸던 적은 없었다. 다음 세대의 시작, 21세기의 좋은 출발을 위해서라도 지난 20세기의 저돌과 우리는 그만 헤어져야 한다"

'난장이가 초아들인 작품', '시간여행'의 작가로, 담대비평의 발행인으로 80년대를 거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조세희씨가 외대를 찾았다.

바로 지난 19일(금) 서울배움터 생활도서관에서 주최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기 위하여'란 주제의 강연을 위해서였다. 20세기 한국사회의 대한 고찰과 전망에 대한 조세희씨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던 이 강연은 2시간여동안의 열반으로 이어졌다.

"한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왔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처음 말을 댄 그는 "첫째로, 역사정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소위 제1세계라고 하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혁명을 겪었고 그 속에서의 성과와 과업을 제대로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1950년이 되어서야 20세기에 진입했다고 보면 된다. 그 후 재벌, 권력, 군부라는 세 가지 괴물들이 지배해온 세상! 우리의 지난 세월이었다"고 한국사실을 평가했다.

또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태초에 물러오기 전의 거미는 집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를 허물어뜨린다. 권력이 세습되었던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거기다 독선적 정치를 끌어들이는 양심파도 잘못이다. 노태우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다. 공권력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자 '상가'라는 수단으로 국민에게 무대타를 하도록 허용했다.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받아 본 일

없는 제3세계 국민들은 학살과 소금은 민간인을 지저분히 겁영삼 정권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대를 겪어온 1세대들이 돈과 권력을 택한자들이 더 많았기에 기형적인 모습을 갖춘 오늘날의 한국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IMF가 타진 것도 이미 80년대 후반 자본의 우위를 앞세워 전면적인 무역공격을 해 왔던 때 예견되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문제의식에 비해 대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는다.

이에 대해 조세희씨는 "이데올로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길거리의 마리를 들뜬 청년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억압에 항거하는 것이다. 대안은 단 하나다. 처음부터 말부터 특이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수습하는 것 민중의 품에서 자란 학생이 민중을 일깨워 함께 나가는 것 그것만이 대안이다"라고 절라 말한다. 곧 그와 같은 비판주의가 대중을 일깨우고 대중의 낙관주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역사는 내 소설에 나오는 수많은 난쟁이들의 절규를 모아놓은 것이다. 한국역사의 진상이 지금과 같다면 300만후에도 난쟁이들의 절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명의 절규를 바린다. 이성으로서 힘을 이겨라"

마지막으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일하는 바대로 행동하라. 당신이 권좌, 권좌를 세상을 바꾼다. 그대로 행동하라" 시종일관 특유의 깔깔한 목소리와 문학적 비유로 진행되었던 조세희씨 초청강연은 '행동하는 지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자라였다.

장서훈 기자 oed989@hanmail.net



나의 인간관계

O...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적고, 십자방함으로 동생의 이름을 적고, 나머지 대각선 방향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게임이 있다. 평생 친구이므로 각별히 신경써야 함

- 외국기업
전직적으로 밀고 당기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
절친한 사이이지만 뒤통수 찌름 - 정치인
나? 나는 재벌

<우>

O...지난 10차 범민족대회이후 체포영장 발부령 명단에서 농성을 하다가 직장장 재발, 병중진 김광우 발민권 상임의정

정권의 탄압으로 치료조치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병원으로 옮겨 진문치료를 받기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는데...



이에 크로니를 자 말하기를 "그동안 많이 죽었다. 이번에는 한 번 실패 보자. 죽은 사람 소원도 아니다..."

<남>

O...크로니를 감옥에 새로운 사나리 오가 잠수했다. 시대 - 세기말적 풍토가 사회를 지배할 때

정소 - 우리 나라 최저 기준을 기록한 적 있는 국회의원
죽거리

#1. 김사장은 호프 코드의 진정한 주인을 가리기 위해 연정철, 배금수씨를 '검모 습관' 대응 '검모 습관'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이들은 농산물(국)에 패배하고 특별검사가 되었다.

#2. 연정철 씨의 농산물(국)에 거지말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음에 드러났다. 그러자 갑자기 일반 검사가 연정철씨와 연금관으로 특별검사를 공격하려 함.

여기까지 읽은 크로니를 감독 '재야' 이 전 전하 알리가 안았는데다가 도대체 이디가 정이인지도 알 수가 없음.

그러자 사나리도 작가 할 "아무런 어 땀습니까, 그리고가 정치인이지. 아서 땀 부분이야 읽어보시요."

<석>

모피열전

'서울 국제노동 미디어' 개최-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주제로 열려

네트워크로 하나된 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다

'서울 국제노동 미디어'가 지난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송실대 사회과학관에서 나뉘어 열렸다. 민주노동이 후원, 금육연맹, 노동조합 정보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사회단체와 함께한, 단체별 연사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미국, 영국 등 7-8개 나라 노동자들도 발제자로 참여했다.

97년 노동법 개정에 맞선 총파업 동맹시절의 단의 활동에 힘입어 처음 열린 1회 행사에 이어 올해는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토론화가 이루어졌다.

조직위원회장 김진경(서울대 교수)씨는 "구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활발한 국제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노동자 네트워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핵심과제"라고 주제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기조에도 따라 토론화는 노동자 네트워크 전략, 노동운동 내부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과제, 현장 노동자에 기반한 대중적인 미디어 전략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디어와 관련한 위크 습이다. 노동조합의 정보와 경험, 각종 네트워크의 현황에 관한 위크습과 더불어 정보기술과 감시문제, 여성노동자의 온라인 진영장벽 문제 등 조합을 뛰어넘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 중, '한국노동 네트워크의 경험'에 대해 발제자로 나온 이윤경(한국노동네트워크의 사무국장)씨는 "노동네트워크는 실질적인 교류, 연대가 진행되는 현실운동과 긴밀히 호흡하는 매개로서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 한국 노동 네트워크는 98년 처음 생긴 이래

노동자 집중투쟁 시기 '총파업 동맹'이나 노보 소식지, 속보 게시판 등을 통해 해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기술적, 구성적으로 평등한 참여의 참여가 적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러한 평등참여의 소의에 대해 일인제(세기말 현장정보센터)씨는 "지난 80년대 노동자투쟁에서도 지도부와 평등참여의 소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오류를 겪었다.

어떤 정보도 어떻게 생산하고 소통되는지에 따라 노동자 투쟁양상은 많이 달라진다. 정보소통은 대의상 상충에서 할 수 있는; 고기술이 아니라 점점 제도화되고 있는 노동운동 속의 평등참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수평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의의 예로 '가상회의시스템'의 독일 노동운동에 소개한 데이비 홀리스(독일 노동운동가)씨는 "노동운동 활동으로 인해 우리에 대

한 인식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노동당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구적 노동력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토론화에서는 일본의 노동자 비디오키타, 밀레니엄 리포트에 대응하는 노동자 네트워크 등 주제에 따른 위크습이 열렸다. 부대행사로 '노동자 현장연로, 노보를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의 50여년간의 노보를 전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영상과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노동운동의 발전상을 그려내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 회의와는 큰 차이를 두었다.

보다 전문화된 주제, 깊이있는 주제토론이 행사를 지난해보다 질있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학술부



영화평 · '유리의 성'을 보고

첫사랑과 홍콩에 대한 보고서

항생(여명 분)과 연무(서기 분)는 1997년 1월 1일 정각에 영국 런던과 부근에서 차량전복 사고로 죽는다. 경악하는 항생의 부인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사이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인도되는 불륜관속에 영화가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영화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항생의 아들 '데이빗'과 연무의 딸 '홍교'의 만남은 처음부터 공작적이고 배타적으로 그려진다. 1997년은 홍콩이 반환되는 해이며, 그 세월에 홍콩의 상징적 조국이었던 영국에서 두 연인이 죽는다는 설정은 반환 이후의 암울한 미래를 미리 확인시켜 주는 듯하다. 그리고 이것은 각 장면들 통해, 두 사람의 죽음을 '불륜'으로 단정하고 영화 관람을 시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콩반환을 휘황찬란했던 홍콩의 입단한 죽음으로 간주하는 우리들의 시선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즉 감독은 '불륜'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홍콩반환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나요?'라고 우리의 통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대적인 시선이 고스란히 투영된 '데이빗'과 '홍교'는 어두운 마음으로 아버지와 자간구 명인 홍콩으로 날아간다.

홍콩에 도착한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자기 부모님의 절친한 친구이다. 뜻밖에도 그들은 그곳에서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된다. 관객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의 말을 통해, 항생과 연무란 인물이 매우 타당한 의미를 가진 인간형이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항생은 가난한 우편배달부 아버지로 두었고, 홍콩으로 이주해온 광둥인(중국인)이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에 대한 민족주의 태도를 하는 인물이다. 본토 중국인의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가 평상시만 한 홍콩인·이것은 연무 아버지의 대사 "늘 광둥인이 문제야!"를 통해 알 수 있다. 연무를 사랑하는 것은 중국과 홍콩 결합

의 메타포인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의 사랑은 외압에 의해 갈라지고 만다. 여기서 외압이란 다를 아닌, 민족주의 태도를 한다고 몸통을 내리치던 영국경찰이며, 재판장에서 위임적으로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영국 재판관이다. 이것 역시 홍콩을 중국에서 할양해낸 영국에 대한 풍자인 것이다. 그렇게 홍콩에 열정을 느낀 항생은 프랑스 유학을 결심하고, 그 물 사이에 안타깝게 이어지던 전화는 모든 슬픈 연인의 이별이 그러하듯 어느 날 문득 끊어지고 만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홍콩의 어느 중국이 학원, 그 두 사람은 우연히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었다. 다시 우연한 모습으로 재회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는 제 2세대인 '데이빗'과 '홍교'의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와 '항생'과 '연무'의 과거적인 과거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다. 감독은 이 두 이야기를 나눌과 씨줄로 해서 다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직조해내고 있다. 즉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항생'과 '연무'가 홍콩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데이빗'과 '홍교'는, 부모님의 시대를 점차 이해해 가고, 그 분들의 순수한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을 통해, 홍콩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재미있는 것은 중국인의 상징이었던 '항생'과 아들인 '데이빗'의 모습이다. 그는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홍교'에게 면박을 당하는가 하면, 홍콩을 아버지가 싫어했던 것보다 더 싫어한다. 게다가 홍콩공방에 처음 도착한 그의 모습은 완벽한 이방인의 모습이다. 얼굴은 같은데, 언어와 생활양식은 다른 그 누구의 모습, 그렇다. 이것은 홍콩 반환이후의 중국과 홍콩인의 모습이 다. 얼굴은 같지만, 홍콩인과 보통화라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체제에서 살아온 양자의 만나야, 바로 '데이빗'과 '홍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과연 홍콩의 미래는 영화의 첫 장면처럼 홍콩의 죽음일까? 우리는 필름이 들어가는 동안, 젊은 시절의 순수했던 사랑과 가슴 아픈 이별을 본다. 우리가 점차 그들을 이해하는 속도와 발맞추어, '데이빗'과 '홍교'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두 분의 사랑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데이빗'도 영화 후반부에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는 모습으로, 홍콩에 정착할 터전 때, '데이빗'과 '홍교'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사랑을 선포한다. 요컨대 '항생'과 '연무'의 사랑은 중국과 홍콩의 합니었던 역경과 과거를 상징하며, 영국에서의 죽음은 전 조국이었던 영국과의 결별, 그리고 그 과거 속의 인물들 또는 과거의 홍콩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영화가 과거의 홍콩과 영국을 절로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옛일을 돌아보고, 그 기반 위에 다음 세대의 희망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본다. 감독은 영화의 파노라마를 통해 관객에게, 둘의 사랑을 '불륜'으로 단정하는 것이 오해였음을 반추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홍콩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홍콩 반환을 바라보길 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영화의 또 다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김원
(중앙·중국과 4)

소개글 ·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창살'

애타도록 불러보는 자유의 이야기

"창년은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활력이 넘친다. 창년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볼줄지 않고 오직 정의와 양심의 가리기로 대로 비타협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순수한 집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나라의 미래일 뿐 아니라 내일의 표상이다. 창년이 사라져야 한다."

노년기에 접어든 한 지식인의 고백이다. 적어도 우리는 청춘을 그렇게 살고자 했다. 가장 정의롭게 살고자 했다. 학생회에서도, 강의실에서, 거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비록 그 댓가로 지금은 '정치 수배자'란 처지에 놓여있지만...

지난해 여름, 푸른 일 무상한 은행나무의 가로수 길을 걸어 떨리는 가슴으로 조계사에 갔었다. 잠깐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수배 해제 농성은 어느덧 또다른 여름마저 남겨버리고, 겨울의 첫 자락을 옮겨집고 있다. 푸르던 은행나무도, 농성전막을 마주보며 서 있던 대추나무도 그 열매와 잎을 다 떨구고 할망은 몸통으로 겨울 앞에 서 있다. 수배해제 싸움도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는 보다 근원적인 사안인 '국가보안법 철폐' 싸움으로 옮겨졌다.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창살'은 우리의 이야기이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불시침을 고스란히 이 땅에 쏟아붓고, 지금은 수배자가 된 우리의 이야기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배생활에 답답한 가슴을 끌어내리는, 애타도록 불러보는 자유의 이야기이다. 네 번의 사건과 여섯 번의 계절이 지나가도록 조계사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수배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비록 밖에서 혼자 뚫어진 불안감은 없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일 뿐인 조계사에 갇힌 무기 양심수들의 이야기이다. 묶인 몸으로 새로운 천년의 대안을 맞이해야 하는 한 외대인의 절규를 담은 이야기이다.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창살'은 우리와 같은 대학생들을 보낸 또다른 창년의 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많은 매스컴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한낱 동정심이나 어설픈 감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 또한 늘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만 우리를 비추지도 않는다. 우리와 같은 고민과 실천 속에 대학생들을 살았던 화자(話者) 남백진, 그녀의 눈은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으로 답답하게 우리를 뒤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서 가장 솔직하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걸어오는 농성은 인생의 계획을 다시 수정하게 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사면마다 번번히 제의될 때 느끼는 분노, 허탈감, 그리고 찾아오는 작은 떨림.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국가보안법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지고 후회없는 오늘을 다함까지까지 '보이지 않는 창살'은 흔들리는 우리의 애환까지도 속속들이 보여주었다.

창비에서 사랑의 체온을 더 그리워하게 하는 겨울의 초이에서 나는 우리 외대인에게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창살'을 권하고 싶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교정 밖 청춘들의 이야기, 일신의 행복보다는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청춘을 아끼지 않았던 갇힌 양심수들의 이야기, 가슴을 갈고리고 방황하는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마스한 차 한잔과 함께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과 자유로운 그날을 설계하고 싶다.

벌써부터 조계사에서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창살'과 함께 만나게 될 무수한 외대인의 체온이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박재철

(서학·영미 및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창살' 시사회
예 : 12월 5일
장 소 : 조계사
오는 법 : 지학철 1호선 경각역 또는 3호선
안국역에서 내린 뒤 걸어서 5분



사
정
수
필

외대를 노랗게 물들였던 단풍이 지고,
이제 마지막 한 잎만 남았습니.
20세기 마지막 해가 가는게
몰시 아쉬운가 봅니다.
이 일세를 추운 겨울 바람을 타고
소리없이 사라졌지만,
새해가 새천년에
또다시 연두빛 싹을 틔우겠지요.
새천년 푸른 잎을 약속하고
거울을 나는 나무처럼
우리의 새세기도
21세기의 희망된 달콤을 넘어
푸른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부 hyodeng@hanmail.net

아~ 시원하다?!

더이상 참지마세요. 자꾸만 나오려고 하는 문예창작의 욕구,
사회과학논문 발표 욕구.
시~원하게 풀어버리세요.
외대학보 학술·문학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학상 : 시(3편이상) · 소설 · 수필 · 희곡 · 비평 등등
- 학술상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마감일 : 12월 중순
- 문 의 : 서울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961-4152, 4466
- 용인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0335-330-4112
- 유의사항 : 작품은 심사용 · 보관용 2부씩 제출
- 심금은 추후 공고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